

토트넘의 희망은 손흥민 뿐인가요?

EPL 개막 6경기서 단 4골... 11위로 급강하 '최악 부진' 3골 넣은 손흥민 의존도 증가 케인은 5경기째 무득점

오직 손흥민 (29·토트넘)만 '뽀퐁'을 하고 있다. 팀 내 최고 연봉자인 해리 케인 (28·주급 30만 파운드)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개막 5경기째 '0골'에 머무는 가운데 '주급 20만 파운드' 손흥민은 3골을 터트리며 팀내 득점 선두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손흥민은 27일 오전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6라운드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0-3으로 끌려가던 후반 34분 만회 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EPL 3호골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에 내준 3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1-3으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다. 토트넘의 부진은 최악 수준이다. 개막 3연승으로 이번 시즌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도 11위로 급강하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출발은 좋았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올버햄프턴과 2라운드에서 밀리 알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기더니 왓퍼드와 3라운드에서도 손흥민의 결승골이 폭발하며 1-0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토트넘은 개막 3연승에 3경기 연속 클린시트(무실점)를 기록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크리스털 팰리스와 4라운드에서 0-3 참패를 당한 토트넘은 첼시와 5라운드에서 또 다시 0-3으로 패하더니 이날 아스널과 6라운드에서도 1-3으로 대패했다.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으로 수비라인이 붕괴한 토트넘은 개막 6경기에서 단 4골에 9실점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거뒀다. 토트넘의 부진은 '주포' 케인의 득점포 침묵과 맞닿아 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적설에 휩싸였던 케인은 결국 잔류를 선택했고, 개막전 결장 이후 5경기 연속 출전하면서 득점은 제로다. 그나마 케인은 지난 23일 올버햄프턴과 카라바오컵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지만 정규리그 '노골'은 치명적이다.

케인의 부진 속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EPL 개막 이후 터트린 4골 가운데 3골을 손흥민이 책임졌다. 손흥민은 개막전 결승골과 3라운드 결승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 2승을 안겨줬다. 토트넘이 따낸 3승 가운데 2승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만들어졌고, 토트넘이 기록한 4골 가운데 3골 역시 손흥민의 뒷덜 정도로 '손흥민 의존도'가 높다.

주급 30만 파운드의 케인이 '잠수 모드'를 탄 사이 주급 20만 파운드의 손흥민이 팀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다.



26일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복련던 터버' 아스널 대 토트넘 홋스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공격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시즌 3호 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을 터뜨렸지만 정규리그 '노골'은 치명적이다. 케인의 부진 속에 손흥민이 토트넘을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을 하며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EPL 개막 이후 터트린 4골 가운데 3골을 손흥민이 책임졌다. 손흥민은 개막전 결승골과 3라운드 결승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에 2승을 안겨줬다.

한국 양궁, 세계선수권 전종목 석권

금메달 5개 12년 만에 싹쓸이... 김우진 3관왕... 최초 기록

'세계 최강' 한국 리커브 양궁이 1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뤘다. 김우진 (청주시청)은 26일 (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마르쿠스 다우메이다 (브라질)를 7-3(29-26 29-28 27-30 28-28 29-27)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도 장민희 (인천대)가 케이스리 코폴드(미국)를 6-0(29-27 28-27 29-26)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앞서 김우진과 안산(광주여대)이 나선 혼성 단체전 (혼성전)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가져온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 금메달까지 수확,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나라가 금메달을 싹쓸이한 것은 2009년 울산 대회 이후 12년만이다. 당시에도 한국이 다 가져왔다.

혼성전도 도입돼 금메달 수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난 2011년 토리노 대회 이후만 놓고 보면 이번이 대회 사상 첫 전 종목 석권이다. 김우진은 혼성전과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 금메달까지 획득해 3관왕을 이뤄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 선수가 금메달 3개를 가져간 것은 남녀를 통틀어 김우진이 처음이다.

장민희는 생애 처음으로 나선 세계선수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또 2015년 코펜하겐 대회의 기보배(광주시청) 이후 끊겼던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6년 만에 다시 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의 세계선수권 3관왕은 불발됐다.

안산은 코폴드와의 준결승에서 2-6(28-29 28-29 28-27 24-28)으로 져 메이저 2개 대회 연속 3관왕 등극이 무산됐다. 안산은 이어진 3~4위 결정전에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4(26-28 29-29 30-29 28-28 30-29)로 돌려세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제덕(경북일고)은 남자 8강에서 미국의 베테랑 궁사 브래디 엘리스에게 0-6(27-28 28-29 26-28)으로 대패를 잡았다.

한국 양궁은 리커브 금메달 5개를 싹쓸이하고 개인전 동메달 1개를 추가하는 최상의 성적을 내며 대회를 대회 이후만 놓고 보면 이번이 대회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뤘다. 연합뉴스

노장은 살아있다... 최경주 10년만에 우승

한국인 최초 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 제패
정규 투어 이어 시니어 무대도 첫 우승 쾌거



PGA 챔피언스 투어 트루퍼드 박 최경주

'코리아 박' 최경주(51)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27일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총상금 22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33만 달러(약 3억 8000만원)다.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팩 클래식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로 PGA 정규 투어 대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다. 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1주일 만에 우승 고지에 오르며 시원하게 털어냈다.

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막하는

8000만원)다.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팩 클래식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로 PGA 정규 투어 대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다. 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1주일 만에 우승 고지에 오르며 시원하게 털어냈다.

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아 투어에 현대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다. 전날 2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였던 최경주는 이날 5번부터 8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추격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14번 홀(파5)에서 이날 유일한 보기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2위와 격차가 3타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을 만큼 편만한 우승이었다.

PGA 정규 투어 8승으로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경주가 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날짜로는 3788일 만이다.

최경주는 우승을 확정후 뒤 현지 TV 중계팀과 인터뷰에서 "10년도 넘게 걸려 다시 우승했는데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함께 경쟁해 쉽지 않았다"며 "이 코스에서 여러 번 경기했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저에게 환상적인 대회라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른하르트 랑거와 알렉스 채가 (이상 독일)가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주는 이날 5번부터 8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추격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14번 홀(파5)에서 이날 유일한 보기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2위와 격차가 3타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을 만큼 편만한 우승이었다.

PGA 정규 투어 8승으로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경주가 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날짜로는 3788일 만이다.

최경주는 우승을 확정후 뒤 현지 TV 중계팀과 인터뷰에서 "10년도 넘게 걸려 다시 우승했는데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함께 경쟁해 쉽지 않았다"며 "이 코스에서 여러 번 경기했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저에게 환상적인 대회라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베른하르트 랑거와 알렉스 채가 (이상 독일)가 11언더파 205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입니다" 27일 대구 수성구 호텔 인터볼고에 열린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PEGASUS) 프로농구단 창단식에서 선수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2020-21시즌을 끝으로 프로농구단 운영을 접은 인천 전지랜드 농구단은 인수한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를 새 연구지로 삼아 2021-22시즌부터 프로농구 리그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아침광장 8:25 아침방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1: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보건복지부장관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속이도 꿀겔(재) 10:00 인강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경찰수업(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55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권력질 보건의복지부 장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숲속 배달부 빙빙 8:00 평등방송 유지원 8:30 유망평방 윤하안전단 9:40 우리집 유지원 12:10 바닷가 사람들 13:00 일단 해봐요 15:25 쿼츠 16:00 마사와 곰 16:30 평등방송 유지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두문 19:50 극한직업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KBS네트워크특선 빅 부리더 15:05 동행(재) 16:00 사사건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생생정보 스페셜 12:55 더뮤트러티 3일(재) 13:5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키오카 15:30 TV 유지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백중원 클래스(재) 17:50 통합뉴스룸 RT	12:00 12 MBC 뉴스 12:20 아무튼 출근 스페셜 13:50 2시 뉴스 외선 15:20 뽀뽀뽀 좋아좋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3:00 신날 벗고 돌싱포맨(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요(재) 17:00 SBS 오뉴스 17:15 JIBS 뉴스 17:30 지역민방 특별대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듣는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령화시대 감성촌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안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메가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라디오강연 22:05 월원경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속이도 꿀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역사재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헬강 꾸무 20:30 노래가 좋아 21:30 경찰수업 22:40 육필방의 문재아들	18:05 테마여행 길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아무튼 출근 22:30 PD수첩	18:30 생방송 투데이 19:30 SBS 8 뉴스 20:10 JIBS 8 뉴스 20:30 더불어 민우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22:00 홍천기 23:10 신날 벗고 돌싱포맨	7:00 KCTV 뉴스 8:00 문화카툰 8:30 CCTV 시청자세상 9:00 KCTV 뉴스 9:30 헬린지 퀴즈챌리 13:10 머스트 위 흥차라도 관중이 14:00 세계의 99방송 15:10 UHD 제주산책 15:20 헬린지 퀴즈챌리 17:00 KCTV 뉴스 17:40 KCTV 시청자세상 18:30 문화카툰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4-740-7331 / MBC ☎ 04-740-2432 / JIBS ☎ 0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8일

김홍성 지단(예지)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기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units 차광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말 끝맺음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 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력 증강.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증점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신익에 충실하라. 85년 기조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는 습관이 필요.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교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우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기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고 시기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운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깨어나고 계획이 없으나 차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재물이 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출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주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합함을 좋아해도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님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서라.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소한 감정이 있다면 풀라. 꿀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인의 기쁜 일이 있거나, 판공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역이 있고 아이디어가 새롭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이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 흉이 도사리니 미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처세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하는 좋은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정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 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없이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원하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에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따른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절정공군. 71년 멍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 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 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